

매화나무와

임경업 장군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양 땅에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도령이 있었습니다. 인씨 성을 가진 이 도령은 몹시 가냘팠습니다. 굴기를 빵 먹듯이 하더니 이제는 양식이 모두 떨어져 끼니를 잇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곶팍 없이 굶어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친척 집에 가서 양식을 꾸어 먹어야겠어.’

인 도령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친척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한 탓인지 남한산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칙칙 같은 어둠 속에는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포근하더니 밤이 되자 쌀쌀해졌습니다. 인 도령은 땀을 뺀땀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갈 길을 몰라 허둥거릴 때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 도령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큰일 났네. 폭우까지 내리니 어떻게 길을 찾아가지?’

인 도령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간신히 옮겨 보지만 장님이 길을 가듯 위태위태했습니다.

인 도령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어둠속을 걸어 보지만 발걸음은 더디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산속을 헤맸을까, 인 도령의 눈에 불빛 한 점이 보였습니다. 어둠 저편에 불빛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 도령은 너무 반가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먼가가 있구나! 이제 살았다.”

인 도령은 크게 기뻐하며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에는 험잡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집 한 채만 달랑 있네. 혹시 길

손등을 노리는 산적의 집 아니야?

입 도령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산적의 집이라면 제 발로 그 소굴을 찾아온 셈이었습니
다. 입 도령은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마음을 고쳐먹
었습니다.

'산적이든 누구든 일당 부딪혀 보자. 더 이상
산속을 헤매 다닐 수 없어.'

입 도령은 용기를 내어 집 앞을 향해 소리쳤
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어른 계세요?"

잠시 뒤, 방문이 열리더니 주인이 나왔습니
다.

"누구세요? 밤이 깊었는데……."

입 도령은 대문을 열어 주는 주인을 보고 냇
을 잃었습니다. 주인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처
녀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입 도령입니다. 친척집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용녀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혼자 살아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용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입 도령을 방 안으
로 모시더니 저녁상까지 차려 왔습니다. 입 도
령은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녁
상을 비웠습니다.

용녀는 입 도령의 잔에 술을 따라 주며 말했
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까지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오늘
밤 당신을 만나니 너무 기뻐요."

"뭐, 뭐라고요? 나를 기다리며 살아왔다고요?"

입 도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오늘 처음으
로 대하는데 무슨 똥똥지같은 말인가?'

입 도령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용녀를 쏘아보
았습니다.

'혹시 백 년 묵은 여우나 귀신이 아닐까? 나를
혹하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용녀가 입 도령의 속을 들여다본 듯 이
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백 년 묵은 여우나
귀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밤 당신을 만난 것
은 옥황상제님의 뜻이에요. 옥황상제님은 우리
를 만나게 해 주려고 당신을 길을 잃게 만들
고, 폭우까지 쏟아지게 하셨어요."

입 도령은 용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용
녀가 따라 주는 술을 연거푸 마실 따름이었습
니다.

이윽고 입 도령은 술에 장뚱 취해 버렸습니
다. 그제야 용녀는 입 도령의 손을 잡고 소곤거
렸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옥황상제님 덕분에 만났어요.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해요."

용녀는 입 도령을 아랫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비단 이불이 깔
려 있었습니다. 용녀는 호롱불을 끄기 전에 한
마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밤이 지나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내
일부터 저를 잊어 주세요."

"용녀,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어찌 당신을 잊
을 수 있겠소?"

"서방님"

입 도령은 용녀와 꺾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
다. 그리고는 이튿날, 용녀와 헤어져 길을 떠났
습니다. 입 도령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방금 헤어졌는데 용녀가 다시 보고 싶다. 하
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내가 어찌 용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입 도령은 용녀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용녀에게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렸
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찌릿찌
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용녀는 500년 묵은 앓구렁이다.”

입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말도 안 돼! 그 착하고 아름다운 용녀가 앓구렁이라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입 도령은 산신령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야. 산신령이 있기는 어디 있어.’

입 도령은 거의 뛰다시피 하여 용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용녀의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 묵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곁에서 용녀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용녀!”

입 도령은 반강제 소리치며 용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용녀는 쌀쌀한 태도를 보이며 차가wie 말했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누군지 이제야 아신 모양이군요.”

“용녀, 나한테 진실을 말해 줘. 당신은 앓구렁이가 아니지?”

“처송해, 당신을 속여서. 저는 500년 묵은 앓구렁이에요. 당신과 하룻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덕에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사세요.”

용녀는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하늘로 빨려 올라갔습니다. 입 도령은 깜짝 놀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용녀, 용녀! 어서 내려와요!”

하지만 용녀는 입 도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 하늘 저편으로 사라

져 갔습니다.

“용녀, 용녀!”

입 도령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용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비늘 세 개가 땅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를 서방님의 뭉호 쓰세요. 그러면 뒷날 서방님의 후손 가운데 이흠날 장군이 태어날 거예요.”

용녀가 하늘나라에 닿았는지 비늘 세 개가 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늘은 땅에 내려앉는 순간 매한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는 매한나무 세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뒤 입 도령은 장가를 들어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매한나무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용녀가 예언한 대로 입 도령의 후손 가운데 이흠날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인조 임금 때 이흠을 낳은 인경업 장군입니다.

